

# “철강산업 다 죽는다”… 범정부 특단대책 촉구

‘철강도시’ 광양·포항·당진시

50% 관세 철회·재협상 요구

K-스틸법 시행령 조속 마련 호소

국내 대표적 철강도시 광양시, 포항시, 당진시가 심화하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다.

권향업 국회의원(전남 광양시), 이상희 국회의원(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과 3개 도시 시장, 상공회의소 회장이 함께 지난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광양·포항·당진 3개 도시는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범정부 차원의 대미 대응 전략 조속 마련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과 철강기업 의견의 충분한 반영 ▲철강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지역 선제적 지원 및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3대 정책을 건의했다.

먼저,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외교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대미 재협상 및 대응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 실행할



광양·포항·당진시는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美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호소했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시행령에 기업의 전기 요금 부담에 대한 경감 대책 및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앞으로 철강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포항시와 광양시에 이어 당진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포항시에 이어 광양시와 당진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 도시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달 여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에 이어 빠르게 제정되고 있는 시행령에 기업의 부담이 큰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 등 기업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한 “우리 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과 K-스틸법 후속조치를 연계하여, 지역 철강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등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철강 도시 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해 3개 도시 상공회의소 회장단도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K-스틸법의 제정 의지는 감사하고 존중하지만,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책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특히 생산 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 문제 해결 없이는 수십 조 원이 필요한 저탄소 전환도 요원하다. 정부는 시행령에 기업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긴급 지원책을 즉시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광양을 비롯한 3개 도시는 지난해 기준 국내 조강 생산량의 93%를 차지하는 주요 철강도시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인해 올해 10월 기준 철강 제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광양 10.9%, 포항 28.4%가 각각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지난 10월 말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가 50%로 유지되면서 국내 철강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농수축산물 쇼핑몰 ‘고흥몰’

16~23일 겨울 흠크페 기획전

고흥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농수축산물 쇼핑몰 ‘고흥몰’이 16일부터 23일까지 겨울 흠크페 콘셉트의 특별 기획전 ‘산타도 쉬다 가는 집 흠크페’를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겨울철 집에서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고흥로컬 티음료·디저트는 물론, 최근 관심을 모은 ‘고흥몰’ 요리비법 프로젝트’ 수상작에 사용된 핵심 재료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최근 흠크페 문화 확산에 따라 프리미엄 원재료 기반의 건강한 차·음료·디저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흥몰은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지역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살린 유자차·생강차 등 겨울철 디저트 제품과 과일 음료, 고흥 유자를 활용한 디저트류 중심으로 상품 구성은 강화했다. 또한 요리비법 프로젝트 수상작에 활용된 고흥 특산물 원재료를 기획전에 포함해 소비자가 ‘수상 레시피 재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전 주요 상품에는 고흥 유자청, 생강청 등 인기 티베이스는 물론 수상작 재료로 활용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포함된다. 생유자, 유자즙, 디저트용 쟈·청류 등도 특가 판매되며, 특히 고흥 나로도에서 재배 중인 ‘국산 커피’도 이번 기획전에 새롭게 선보인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서 크리스마스 추억 만들어 볼까

4일간 이벤트 ‘메리-go-빙고’

마술 공연·미션형 빙고 프로그램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참여 열기 기대된다.

또한 부대행사로 크리스마스를 맞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1일 2회(오후 1시, 3시) 어린이 매직 공연이 진행된다. 생태학습관 중앙 로비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전문 마술사의 참

조성하여 방문객의 인증샷 명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에도 즐길 거리가 있는 곡성을 위해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군은 이번 ‘메리-go-빙고’ 이벤트는 겨울철 비수기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포토 인증 및 SNS 미션을 통한 자발적 바이럴 홍보 효과, 그리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선물 증정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구례군수와 함께하는  
156개 마을 구들장 대화

구례군이 올해 연초에 이어 두 번째 구들장 대화를 지난 9일부터 산동면 내온마을을 시작으로 8개읍면 156개 마을을 방문한다.

구들장 대화는 군수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 주민들과 격이 없이 만나 지난 건의사항의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새로운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밀착형 소통행사이다.

연초 구들장 대화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즉시 처리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서 조치했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현재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구례군은 이번 일정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건의사항과 마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정기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은 군정 운영의 중요 한 절차”라며 “두 번째 방문은 후속 점검과 추가 의견 수렴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앞으로 구들장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 1만 5343농가에  
공익직불금 197억원 지급

순천시가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97억원을 1만 5343농가에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 2020년부터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사업을 통합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 간 소득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5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6~11월 동안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실시해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무교육’을 운영한 결과, 교육 이수율이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향상되며 농업인의 이행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지급된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ha 이하, 소득·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농가에 연 130만원이 정액 지급됐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ha당 평균 205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며, 놀에는 통질했던 단기화 평균 5% 이상돼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16개 주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항목별 기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이상기후,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가 많았다”며 “이번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예상  
2025년 12월호

2025년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스 : 062-222-0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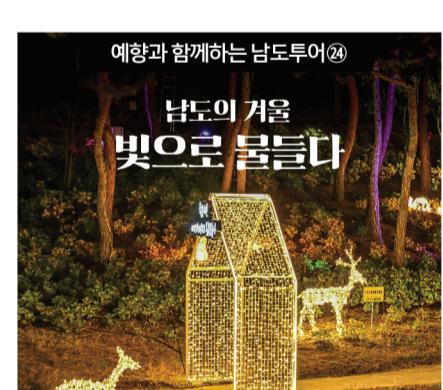
송년기획·문화계 결산  
2025 문학·전시·공연

수목과 디자인  
국제비엔날레 눈길

20  
25

조인호의 키워드로 읽는  
광주 전남 미술사⑥

에도와 창신의 북향  
의재와 남농 회화



복합문화공간, 도시의 미래가 되다④

서울 예술의전당

전시·공연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수준 높은 예술의집

